

영암F1경주장서 23~24일 '모터피아 축제' 열린다

모터뮤직페스타·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듀에슬론대회 열려 영암군 굿즈와 우수 농·특산물 판매 부스, 푸드 트럭존 운영

영암군이 23~24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24 영암 모터피아 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4월 문화부의 '지역특화 스포츠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된 영암군은 '영암 모터피아'를 구호로 F1경주장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4 영암 모터피아 축제'는 1공연인 '모터뮤직페스타', 2대회인 '전국 대학생 포뮬러 자작자동차대회', '전국 듀에슬론대회'로 구성돼 있다.

모터뮤직페스타는 23일 F1경주장 상설트랙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오후 5시 30분부터 마미손, 키디비, 소찬휘, 김희재, 강혜원, 박세욱 등 힙합,

록, 트로트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장 인파에는 영암군 굿즈와 우수 농·특산물 판매 부스, 푸드 트럭존이 운영되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전남도청-만남의 폭포-영암 기차랜드-삼호 버스터미널을 잇는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전국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23-24일 상설트랙에서 진행된다. 대학생들이 설계·제작한 포뮬러 자동차의 성능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는 공인 레이스 코스 테스트 기회 제공 등으로 다른 지역 대회와 차별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전국 28개의 대학에서 모인 1500여 명의 참가자는 상설코스와 오프로드로 나눠 'FOMULA' 'EV

클래스' 'BAJA 클래스' 3개 종목에서 각축을 벌인다.

전국 듀에슬론 대회는 23-24일 F1경주장 트랙을 최적화한 코스에서 진행된다. 철인 3종 경기 중 수영을 제외한 마라톤과 자전거 경주에서 참여 선수들이 강철 체력을 뽐낸다.

듀에슬론 대회에는 200여 명의 철인협회 동호회 회원들이 남자·여자 'TTT', 혼성 'ITT', 'Main Class' 3개의 종목에 참여한다.

대회장에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튜닝카 100여 대도 전시될 예정이다.

김명선 영암군 대불기업지원단장은 "영암 모터피아의 이름을 걸고, 다양한 스포츠 대회와 행사로 영암을 찾는 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면서 "스피드 도시 영암을 알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F1경주장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이 23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2024 영암 모터피아 축제'를 연다. 축제 일부인 모터뮤직페스타. <영암군 제공>

그라시아스 합창단, 목포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다음달 7일 시민문화체육센터

그라시아스합창단이 다음 달 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공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선보인다.

이 공연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크리스마스에 담긴 의미를 각막마다 다른 형식과 표현으로 재조명했으며, 그들만이 가진 따뜻한 음색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통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다.

1막은 2000년 전 로마 지배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작은 마을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를 오페라 형식으로 선보인다.

2막은 한스 크리스티안 앤더슨의 '성냥팔이 소녀'를 각색한 뮤지컬로 자기밖에 모르는 말괄량이 소녀 안나가 크리스마스 기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가족 간 따뜻한 마음조차 사라지고 있는 각박한 시대에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한다.

3막은 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하는 크리스마스 명곡의 무대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깨끗한 인트네이션과 환상적인 화음으로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공연 모습.

이 공연의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관계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옥같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오페라, 뮤지컬, 합창으로 펼치는 새로운 문화예술콘텐트로 따뜻

한 감동과 새로운 희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며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기쁨과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시의회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목포시 "TF 구성 최선 방안 모색"

목포시의 화장장(승화원) 운영방식이 현행 민간위탁으로 존치될지, 직영으로 전환할지 기로에 놓였다.

목포시의회는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토록 촉구했다.

시의회는 "승화원의 직영 운영이 가능함에도 화장장 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목포시는 12월 31일 화장장 민간위탁기간 종료 앞두고 지난달 14일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 모집을 공개했으나 시의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중단됐다.

시의회는 당시 목포시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해 시의회의 동의나 보고없이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고 주장했고, 시는 절차를 거쳐 재공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은 열세남비와 불투명한 운영문제 등을 제기하며 화장장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오 의장은 "민간 위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빠른 시일 내 직영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시의회의 '화장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에 고민에 빠졌다. 현실적으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번 정례회에는 불가능해 내년이나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시의회의 직영 권고를 수용하기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화장장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촉박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과 전문인력 전환 등의 행정적 절차 문제로 '화장장 대란'마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1일 오전 '시의회의 화장장 민간위탁 부결'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화장장이 내년에도 멈춰서지 않기 위해서는 당분간 비상 임시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TF팀을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구취재본부장 moon@

진도군 '전남도 산불진화 경연대회' 최우수상

시상금 균인재육성장학회 기부

진도군이 전남도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가 주관하는 '전남도 산불 진화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연대회는 현장 통합지휘 산불 진화 시스템 운영과 현장 대응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열리며, 올해는 영광군 법성포 단오제 전수관 일원에서 지난 13일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도 22개 시군 산불 전문 예

방진화대와 담당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했다.

진도군은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 2년 연속 수상으로 최우수상의 상금은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속적인 훈련과 철저한 장비 점검 등을 통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펼쳐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 "혁신정책 도와달라"... 내년예산 7013억 편성 제출

박우량 군수 군의회 시정연설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9일 제32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신안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공유제 ▲청년 여성 임대 사업 ▲버스완전 공유제 ▲퍼플섬 색채마케팅 등 혁신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안군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이 같은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며 균형 협조를 요청했다.

또 최근 세계 권위 있는 '2024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 금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가 하면, 지난 13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 올라퍼 엘리언스 '숨결의 지구' 작품 전시장을 준공해 작가와 함께 공개하는 등 전국의 여러 기관과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러 찾아올 만큼 신안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정부가 매년 수십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는 네 번째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과 전남형 만원주



박우량 신안군수가 신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택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의 마중물로 삼고, 청년 여성 100척 임대, 1004굴 양식 육성, 김 양식 신규 면허 380ha 확대, 압해읍 농공단지 10만 평 조성 등 청년 산업 일자리 시책 등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2025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선도 ▲신재생에너지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 ▲농어촌 주민이 잘사는 행복한 환경 조성 ▲관광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생태-인문학의 성지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 실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리한 신안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보호망 구축 등을 위한 내년 예산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7013억원(일반회계 6644억원, 특별회계 369억원)을 편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효과성이 낮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개신지구 등 6곳 내년 지적재조사

국비 4억원 확보... 실시계획 수립

영암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영암 개신지구 등 6곳을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경제·면적 등을 최신 기술로 정밀 측정해 등록해 지적의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영암군은 국비 4억원을 확보해 영암 개신, 신북학동2와 이전, 군서 도갑, 서호 태백과 미암 호포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198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실시계획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서 제출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순으로 2년 동안 진행된다.

박이규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며 "영암군민의 경제 분장 해소 및 군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에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선정

섬마을 청소년·주민 문화체험 진행

완도군이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인프라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5년부터 '바다를 품은 완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바다를 품은 완도 프로그램은 완도의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이해하는 청소년 다큐 촬영단을 운영, 섬으로 이뤄져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적은 섬마을 청소년·주민들과 함께하는 섬마을 탐방, 버스킹, 문화 공연, 가족 영화관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개별주택가격 산정 특성조사

1만4899가구 내년 1월17일까지

영광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17일까지 1만4899가구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영광군은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내달 22일까지를 집중 조사기간으로 운영,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조사표를 기반으로 건물 용도, 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경과 연수 등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군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특성조사를 위해 재무과장을 총괄로 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지난 14일 읍·면담당자와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요령과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 가격 검증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